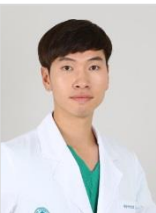


## 간호사 칼럼 |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를 아시나요?

## 김보준 간호사(SICU2)



안녕하세요?  
외과계중환자실2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김보준입니다.  
눈이 내리던 2015년도의 겨울에 병원에 입사한 후 2016년 한 해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직접 경험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뜨겁고 치열한 생사의 경계선인 중환자실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발령받은 후 어색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손에 익어가고 있을 무렵 문득 저는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꿈을 꾸며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왔던 대학생활을 떠올리며 다시 잊고 지냈던 크고 작은 꿈들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홀해진 나눔과 봉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박7일 동안 광활한 사하라 사막(250km)을 달리는 사막 마라톤은 오랜 시간 꿈꿔온 일들 중 하나였고 매년 40여 개의 나라에서 수백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인 사막 마라톤에 참가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기부, 후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며 바라본 환자들 중 가장 마음이 아린 환자들인 소아암 환우들입니다. 끊임없이 꿈꾸고 환하게 미소 짓어야 할 나이에 병마와 싸우는 그들을 보며 꼭 그들의 꿈과

환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잠을 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광활한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꿈을 꾸며 오늘 하루도 잠을 설치며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나태해 지려 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젊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넘치는 열정으로 어떻게 보내야 먼 훗날 후회없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곤 합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책에서 사막 마라톤을 알게 된 후 처음 주변사람들에게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해보겠다고 하니 "뭐 허러 돈까지 들여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같은 부정적인 말을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라톤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제가 그런 말을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훈련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마라톤(250km)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앞서 마라톤 풀코스(42.195km) 완주라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근무 전, 후, 쉬는 날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병원 주변 한강을 달리기 시작했고 마라톤이라고는 생전 처음 해본 제가 가을의 전설,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계획했던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헬스, 수영, 마라톤 등을 틈틈이 병행하며 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라톤과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며 혼자서 진행해 나가기에 가끔 감당하기 버거운 부분들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저의 꿈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소중한 도움과 응원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제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가슴 뛰는 일하기에 고단하고 힘든 준비과정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하라 사막 마라톤 : 어드벤처레이스 회사인 Racing The Planet에서 개최하는 4대 사막 레이스(4 Deserts) 가운데 하나로 7일 동안 필수장비만 가지고 250km의 나미비아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대회(17. 4. 30 ~ 5. 6).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해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개최되는 250km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하는 김보준 간호사의 나눔 실천 프로젝트. 펀딩으로 모금한 금액은 리워드 제공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암 환우의 치료비 및 수술비로 사용예정이다. 프로젝트 소개 및 펀드 참여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www.wadiz.kr](http://www.wadiz.kr) 접속 후 "사막 마라톤" 또는 "김보준"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 ICU News

### MICU1

- 한정은 간호사 출산(딸)
- 3월 신입간호사 : 유건현, 최수연

### NSICU

- 3월 신입간호사 : 조혜원, 문소현

### NRICU

- Pupilometer 2대 입고
- 울산대 성인간호학회 실습 (2/27~)

### ACU

- ER 부서이동 : 이주은 (3/1)
- 3월 신입간호사 : 강병수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학술대회 (3/11) : 박은경, 강경현
- 간호사 테마여행 (3/15) : 박은진, 서민기
- Ventilator (PB 840) 1대 추가 입고 (3/21) : 고도경리음양실
- 병원응급간호사회 춘계학술대회 (3/24) 발표 : 김명선

### MICU2

- 3월 신입간호사 : 김영진, 김원경
- 중환자 간호학생 실습 (3/6~5/26)
- CLS 유자필 : 박샘 외 5명
- CLS 승반 자필 : 장만영 외 1명

### CCU

- 출산 : 김현희 (3/14)
- TCTAP live 유관부서 사전 회의 (3/9)

### MAT

- 출산 : 신유경 (3/19)
- 울산대학교 임상대학원 실습 (3/13~15) : 이지미
- 부서위탁교육 - 양병원주사실 (3/15) : 신유경
- 시폐소생술과 응급약품의 이해 (3/16) : 이지미
- 부산 동아대병원 연수 (3/24)
- 시뮬레이션으로 배우는 이동식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호흡기에 중환자 간호 (3/31) : 한연차

### SICU1

- 3월 신입간호사 : 김민지, 신준영
- 신임 SICU 임상간사 : 성현우
- 중환자간호사회 춘회 참석 (3/11) : 이선주 외 3명
- 서울간호사회 춘회참석 (3/14) : 이선주

### PICU1

- 컨퍼런스 (2/21) : 모아연아병
- PCS 자력화교육 (2/27) : HT, ECMO 환자간호
- 3월 신입 간호사 : 손세빈, 김지영
- 환자용 모니터 교체 (3/6)

### NICU1

- INO Max (이노퐁 NO delivery system) 2대 입고
- 복직 : 권아영 (3/14)
- 3월 신입간호사 : 신수진

### SICU2

- 조무원 대상 AGS 교육 및 모임 (3/7)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학술대회 및 춘회 (3/11)
- 신임 직필 환영 모임 (3/11)
- 3월 신입간호사 : 이지수

### NICU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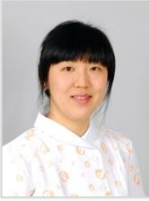
- 부서이동 (3/1) : 김수영 (IS5병동 → NICU2)

### RT

- AIRWAY VISTA (3/25) : 서희정, 서지진, 김은영
- 호흡기표식 4월 업무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동관ICU	김은영	886242	
MICU2/SICU1-2	서희정	886244	T.6244
일반병동	서지진	886241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 시작은 '권유'였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빠짐없이 배달되는 간호부의 메일에도 도도하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었는데, 진심이 담긴 '누군가'의 '권유'는 단 한번에 거절하기 힘든 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승단 지원을 했었던 나는, 그 과정에서 해야 하는 고민과 노력들을 알고 있었고, 승단을 하지 못했을 때의 허탈함과 아쉬움도 경험했기에 지원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 선배들의 격려와 간호 전문가로서 한 걸음 발돋움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욕심이 '다시 한 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각종 매체에서 43년만의 최고 기온이라 떠들던 무더웠던 여름날, 두 번째 도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막상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례를 찾는 일이었다. 담당간호사로서, duty CN으로서 업무를 하며 스쳐 지나갔던 환자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어려웠다. 전혀! 하나도! 떠오르는 사례가 없었다. 도대체 내가 간호했던 수많은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왜 기억에 남는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드러낼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인지. 매일 매일 고민하고 같은 근무조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사례가 될 환자들을 찾아 나섰지만, 적절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간호전문성 강화과정'이라는 교육을 수강했던 것이 생각났고, 교육 과정 중 간호 사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해준 기억에 남는 환자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번뜩이며 스쳐 지나갔다. 그랬다. 오늘 담당 환자였던 그녀가 바로 그 '기억에 남는 환자나 상황'에 해당하는 이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막힘 없이 다룰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만이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자 오늘 그 '기억에 남는 환자'에게 적합한 '나의 간호' 가, 늘 하고 있고 언제나 필요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간과할 수 있는 그 간호가 바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Ventilator, ECMO, CRRT를 적용 중이던 30대 여자 환자인 그녀는, 심장과 간 이식수술을 받는 것 이 외에는 완치가 힘든 사례였다. 그녀의 남편은 수술 진행을 원하는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고 있었고, 이러한 가족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치료의 방향 또한 정해지지 않고 있었다.

수 일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나는 용기를 내어 추가면회를 신청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제서야 남편은 입원 전 아내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내게 해주며, 환자는 '본인의 마지막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겠지만, 이식 수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아프지 않고, 두 자녀들과 마지막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였다고 했다. 남은 시간이나마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남편은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이 싫어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지만 가족들과의 대화 필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된 나는, 친정식구들과 남편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였고, 담당 주치의와 가족들은 긴 대화 후에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였다.

DNR 결정을 한 그날, 나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 주고 싶었고, 동료 간호사들과 의논하여 추가 면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매일매일 변해가는 모습에도, 의식이 점점 흐려져서 대화할 수 없는 모습에도 의연하게 입맞추고 안아주던 아이들과 남편은 그녀의 생일이었으나 길고 긴 이별을 고하는 날이 된 그 때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읽어 주었다.

보통 담당의와 주치의가 해결하거나, 가족들끼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생애 말 환자의 치료 방향의 결정과 가족들 간의 갈등 해결을 간호사로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에서부터 시간을 내고, 대화를 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것까지 간호의 측면에서, 더군다나 존각을 다루는 환자들이 가득한 중환자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며, 드물지 않게 경험하는 환자의 죽음과 환자와 이별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특별할 것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글로 표현하고, 사례로 작성하는 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해서 이것 또한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임을 알고 있었던 나에게 이 사례는 간호사로서의 좁았던 시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먼저 용기내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나의 경험들을 담담히 글로 적어 사례를 제출한 후, '과연 이것으로 충분히 승단이 가능할까?' 라는 지속되는 고민에 '축하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그날.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으로 '간호의 본질(essence)'을 고민했을 평가자 및 선배들과, 논문을 찾아가며 멋진 제목의 아이디어를 주고 사례를 읽으며 같이 눈물 흘려준 동료들에게 덧붙여 감사를 전하며, 지금도 어디선가 '권유'를 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오늘도 했을 그 간호'가 바로 전문가임을 보일 수 있는 사례임을.

'오늘 나의 그 환자가 바로 그 사람' 임을.

돕는 이들은 항상 곁에 있음.

도전은 아름다운 것임을.

풍납동 서당

권토중래 捲土重來

거둬, 말 권 捲 흙 토 土 다시 중 重 올 래 來

뜻)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온다. 한번 실패하였다가 힘을 길러 다시 도전하는 것

예문) 김의원은 작년 시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으나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토중래 하였습니다.



지호씨의 그린 라이트 | 각자의 언어

이지호 간호사 (MICU1)



최근 개봉한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다. 1997년도에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것을 리메이크한 영화는 아니다(그것도 꽤 괜찮다). 천재 감독 드니 빌뇌브가 가진 재능의 정점이랄까. 엄청나게 몰입을 했고 영화가 끝나고 나선 박수를 쳐댔다(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지만). 문과계의 '인터스텔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훌륭하게 접근했고 멋지게 풀어내었다. 그 중 가장 집중하고 숨이 가빠울 만큼 흥분했던 것은 바로 외계인의 언어를 해석하는 부분이었다. 문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곧 영화의 여정이었고 플롯이었으며 줄거리였다.

뭐,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써먹을 데라고는 수능 볼 때뿐이었다. 그 와중에 느낀 것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중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 한다. 이미지로 진행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이뤄지며 이후에는 언어로 사고가 진행되는 부분이 압도적이다. 그렇기에 동사가 앞에 붙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분명 사고 방식에 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문장을 매우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얼마 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만 봐도 수많은 반전이 있지 않았는가). 또한 지구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잘도 그러겠다'라는 문장이 존재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 '잘'이라는 긍정적 부사와 '그러겠다'라는 미래형 평서문이 만나 상대를 조롱하는 문장이 되다니. 굉장히 세련됐을 뿐 아니라 풍자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곧 우리의 사고 방식의 색을 나타낸다.

주인공은 외계인의 입장에서 언어를 이해하려 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지구의 언어를 알려주려 애쓴다. 두 부류 모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기에 그 겉은 엄청나다. 게다가 참을성 없는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다가는 저들이 우리를 침공해버릴 것이라고 압박을 해댄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그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언어를 공유하고 끝내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큰 변화를 맞이한다. 결국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 시도 자체가 소통이고 그것이 곧 이해라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다.

우리는 환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 인투베이션을 한 채 무의식 속에서 스스로 싸우는 환자들,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지만 약물이나 중환자실 자체에 대한 혼란이 있어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도 많다.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보드판에 마카로 애써 하고 싶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손에 힘이 떨어져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래도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다던가, 특정 부분이 아플 수도, 단순한 요구사항일 수도, 본인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을지도 모른다. 처음과 끝의 개념이 사라진 동그라미 모양의 표의문자로 우리를 이해시키려 했던 외계인들처럼 환자들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비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행하는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야 한다. 마치 외계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하며 해치려는 의도 따윈 애초에 없었다는 진의를 필사적으로 나타냈던 그 주인공처럼-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곧 가족들의 면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가래를 뱉으려 하니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란다. 욕창이 생길 것 같아서 실례지만 엉덩이를 살피봐야겠다. 식사는 할 수 없다. 배고픈 것은 잘 알지만 지금은 위장에서 출혈이 있는 것 같아 음식을 해야 한다-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통증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는 시점에 등장한 것이 비언어적 통증 측정 도구인 CNPS일 것이다. 어느 한 바이탈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환자의 표현을 아우르는 방식이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시도 자체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알 수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굉장한 인도주의적인 도구인 셈이다. 물론 진심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말이지 그럴 때면 환자들은 그들만의 '환자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쩐지 믿음직하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환자어'가 환자들의 사고를 잠식한다. 그들만의 언어로 생각을 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심지어 악물에 취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찌그러진 동공, 잔뜩 부은 팔, 벌겋게 부르튼 입술로. 그리고 나선 익스투베이션과 동시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독자적인 생각을 짜내었던 유아처럼.

마음을 전하는 책

마음속에서 오랜 친구 같은 간호사에게 한 권의 책과 함께 추억을 선물 받았다. 내과계중환자실의 박영 선생님이로부터였다. 그 5년 전 추억 속의 나는 병원 입사 후 8년간 흉부외과에서 근무하다 처음으로 신경외과로 부서지를 이동한 상태였다. 그런 나에게 그녀는 먼저 다가와 신경외과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부서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가 내 용감함 덕분에 운전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말한다면, 난 그녀의 유쾌함과 세심함 덕분에 신경외과중환자실에 즐거운 마음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난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를 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그녀가 있다. 심장내과중환자실의 신나라 선생님이다.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벌써 10년 전 일이다. 그때 그녀도 타원에서 근무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새롭게 근무를 시작했었다. 나도 그때 누군가처럼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그녀가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흉부외과중환자실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그녀와 친해질 수 있었을까? 다행인 것은 도움이 없이도 그녀는 스스로 훌륭하게 적응해 멋진 중환자실의 일원이 되었다.

최근 나는 중환자실 위원회 활동 모임이나 관련 교육의 장소에서 그녀를 만난다. 그녀는 언제나 누구보다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그

녀의 큰 웃음소리처럼 기꺼이 즐길 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돕는다. 나와는 좀 다른 그녀를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하며 난 요즘 그녀를 참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이라는 책을 전한다. 사랑에 대한 어여쁜 문장과 아름다운 사진이 가득한 이 책이 그녀와 참 잘 어울리는 듯 하다. 곧 다가올.. 아니 이미 다가온 봄날에 그녀가 이 책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From. 최애란 간호사 (NSICU)



To. 신나라 간호사 (CCU)

Thank You | 플로팅 RN을 마치며..

송현승 간호사 (MICU1)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프로페셔널한 CSICU 선생님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플로팅 RN으로 근무한 송현승 간호사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3월부터는 NSICU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쪽지를 남깁니다.  
 2달 동안 심장수술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제가 큰 사고 없이 간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SICU가 저에게 좋은 추억과 훌륭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따뜻하게 마음 써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MICU1 밖에 몰랐던 저에게 새로운 동료,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입니다.  
 병원 내 어디서든 혹은 병원 밖에서라도 마주치면 꼭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서지만 같은 중환자 간호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하시는 선생님들 잊지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만나면 받은 도움 갚을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 이달의 Culture & 생활 정보 ★

주성의 간호사 (CCU / GWP 위원)

<공연안내>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으로 2년 만에 다시 내한!"

1920년대 시대를 대표하는 보드빌(Vaudeville) 형식의 무대와 재즈풍의 음악으로 구성 된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롤러'한 어메리칸 뮤지컬을 오리지널 팀으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이 관능적인 춤을 추며 부르는 'All That Jazz' 를 즐겨 볼 준비 되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티켓에매' 를 참조해주세요!

-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 일시 : '17. 05. 27 ~ 07. 23 150분(인터미션20분), 만13세 이상



<지역축제> Halago 선상 비어 파티



날씨도 풀리고 벚꽃이 만발하는 봄, 봄에는 한강, 한강 하면 맥주 아니겠어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수제 맥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리버드로 티켓을 구매하면 현장예매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맥주 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업무에 치여 몸도 마음도 지친 선생님들 친구, 애인 손잡고 한강 유람선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즐겨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와그(www.waug.co.kr)' 서비스를 참조해 주세요.

- ✓ 장소 : 할라고 압구정 선상점 1층 & 2층
- ✓ 일시 : '17. 4. 21(금) 18시-24시 ~ 22(토) 12시-24시

<생활정보>

집에서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삼겹살 소스 제조법 (출처 : 딩고푸드 'Dingo Food')

매일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 인생 삼겹살로 만들어줄 '마법소스'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 ✓ 쌈장에 빠진 고기(쌈장소스):  
 쌈장3T + 다진 청양고추1T + 다진 마늘1T + 참기름1T + 매실액2T + 마요네즈1T
- ✓ 간장 주빌레(간장소스): 설탕1T + 연겨자0.5T + 간장3T + 식초2T + 물4T + 맛술1T + 레몬즙1T
- ✓ 겨자와 함께 사라지다(겨자소스): 연겨자1T + 간장1T + 식초1T + 설탕1T + 레몬즙1.5T

생각의 방 & 고객의 소리

임윤주 간호사 (MICU2)

66번 하세요. ○○○ 5번  
 2개월 힘들다. 행복했던 입실 보름만에  
 변신도 늦게 갑니다  
 저니 알라딘으로 우리 옮기잖아 알라딘은  
 여기 모든 분들이 아랑곳도 손길도 안한들의  
 반듯이 되어 슬픔을 덕분이라 생각하니까  
 아무도 알라딘 못들어오는 추억이 아니잖아.  
 전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값지마 라노아비 군 생활이 이십여일만의  
 병실생활 같은 안해 생활이잖아  
 사랑이 한은은으로 안된것에 요구나  
 알라딘 알라딘 것 같은 생활이 될지 .....  
 아무것도 없는데 개인 문은 불을, 눈 뜨고 할거라  
 사랑이 행복이 늘 후마 리포 남니까  
 입이 내개알라딘 우리도 알라딘

발신: ○○○ 장 9개  
 수신: 간호과 전 간호원 여러분  
 제가 아산에 온후은지 벌써  
 60일이 나뉘 희망과 꿈을 이룬게 함것은  
 간호학과 전 간호사님 여러분 덕지오  
 분할과야 간호사님들 덕분에 이터쫓은  
 키워 갓있음내 밤을 관잠도 지지않고  
 여러한자 들은 모가버 버섯처럼  
 내 밤마야는 생각하마 큰 용기를  
 가지게 되어 이터게 희망은 갓인 오는  
 환자인 저역시 모음로 간호사 여러  
 보살핀이래 이터희망은갓인  
 치료해 세운 아산은 생각하마  
 간호사님 여러분과 함께 모 희망가지고  
 치료보살핀은 나  
 아산 간호사 여러보살핀 보살핀은 나  
 모든 간호원님 희망과 꿈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산 간호사 임윤주

MICU2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가시면서 환자분들께서 작성해주신 편지입니다. 처음 입실하셨을 때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셨던 어르신들께서 많은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병동으로 전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때로는 일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힘나게 하는 원동력은 이러한 환자분들의 회복과 우리의 정성을 알아주시는 마음 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